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산 박순철

#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수정 카페' 문전성시

### 순천시, 마을 공동체 메카...전국서 벤치마킹



순천시는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순천시 금곡동 '청수정 마을카페'가 마을 공동체 메카와 함께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의 필수코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곡동 '청수정 마을카페'는 1930년대에 건축된 한옥으로 '새뜰마을 사업' 과정에 철거 또는 존치 여부 놓고 순천시와 전문가·지역 주민이 논의한 끝에 보전을 선택해 리모델링 후 지난 2017년 11월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전국 각지 기관·

특히, 인근 빈집을 철거하여 조성한 마을공동체에서 재배한 채소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정성껏 만든 집밥과 플라워 쿠키, 양갱, 차는 방문객들의 인기 상품이다.

마을카페의 '어머니 집밥'은 수년 간 건설현장 조리원으로 근무한 마을주민의 노하우와 마을 전통음식이 결합하여 소소하지만 정갈한 음식으로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청수정 주민들은 '새뜰마을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사라진 마을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2015년부터 대보름날 지신밟기, 귀 밟기 술 빚기 등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동 이북백래 서비스 청수정 밥상단 운영 등 주민스스로가 주민들을 돌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조태훈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 회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내년에는 국토부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백운산 4대계곡 쾌적한 환경 제공나서

광양시는 피서철을 맞아 백운산 4대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44일간 피서철 백운산 4대계곡 운영·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운산 4대계곡은 육룡 동굴, 봉강 성불, 진상 어지, 다압 금전계곡으로 이뤄져 있으며, 많은 수량과 깨끗한 수질로 피서철에 휴식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8만 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시는 4대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 4대계곡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행락질서 불분신고 접수와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광양지역 대학 정상화 위해 관·학 업무협약

광양지역의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관·학이 서로 손잡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양시는 최근 전남도, 광양시, 광양시의회,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와 지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시의회는 지역대학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학생 출원, 산학 협력, 취업률 제고 등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조례' 등 전라남도과 광양시의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게 됐다.

아울러 대학교에서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함께 전라남도과 광양시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선도적 연구 및 기숙생 주소지 이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남도와 시 등 기관사 회단체와 대학교에서는 대학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정부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의 적극적인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대학교 정상화 노력을 위한 MOU 체결 등의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시, 민선7기 첫 인사 단행

4급 1명·5급 8명 등 승진 55명·전보 150여 명

순천시는 명예퇴직 공로연수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11일자로 민선7기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4급 1명, 5급 8명, 6급 8명, 7급 이하 38명 등 총 55명이 승진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업무성과 시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사무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경력자가 많은 소

수직렬인 보건, 공업, 농촌지도직을 5급으로 승진시켜 포용인사의 특징을 보였다.

전보인사는 민선6기 시정의 연속성은 살리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폭으로 단행했다.

시는 효율적 조직운영과 개개인 전문성을 살린 전보를 원칙으로 했고,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사상단 모바일 앱 '순천톡' 등으로 접수된 직원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순천시 첫 여성 인사팀장이 탄생하는 등 주요보직에 여성들을 전진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인사 사전에도 승진 가능한 인원과 직렬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6급 팀장 보직 부여는 직렬별 결원 직위에 현직급 고경력자 우선으로 보직을 주어 공정성과 조직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지지부진과 4차산업혁명 등 시대흐름을 반영한 민선7기 첫 조직개편에 맞춰, 소수직렬을 배려한 포용인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나주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T/F팀 운영

### 내년부터 시행...농가 우려 불식·소비자 신뢰도 제고 최선

나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효율적인 대응 및 농가 관리를 위해 합동 T/F팀을 구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등록되지 않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kg당 0.01mg로 일률 적용한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

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도가 정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적용,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와 더불어 생산농가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 손실 예방과 소비자 혼란 등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PLS 대응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서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시사무소,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시지회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지난 6월 27일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정기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PLS 시행 대비 추진사항을 공유·점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PLS 제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농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인규 시장은 "내년도 PLS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지역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T/F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순군, 여름방학 '수영 특강교실' 운영

오는 28일~8월 26일 진행...초등생 50명 선착순 모집



화순군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이 이달부터 여름방학 수영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한달간 평일 오전 11

시 주2회 수업으로 진행되며, 강습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6시부터 수영장 안내데스크(☎379-3951)에서 50명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수업은 수영을 처음 배우는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적응훈련부터 시작해 수영장 에티켓, 안전교육, 자유형 영법 강습으로, 2개반(한 반 25명 정원) 편성해 강습비는 3만 5천원이다.

군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방학을 더 신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하루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5명의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탈의실 사물함 교체 등 하반기 환경개선 작업을 앞두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